

목 차

ARTICLES

- 편집인 인사말
- 진주시장 축사
- 유네스코 본부 축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축사

논문

- 21세기의 창의도시: 일본의 사례
- 치앙마이의 창의 도시화를 위한 지역 전통 지식의 보존과 전파
- 창조도시론의 전개와 한국의 상황
- 농촌차원의 문화공간
- 민속예술의 재생을 통한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 신명과 흥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 진주를 기대하며

대담

-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 : 과제와 극복방안

창의관광 트렌드

- 목적지 생태계의 지렛대인 창의관광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 바르셀루스(포르투갈)
- 수코타이(태국)
- 치앙마이(태국)
- 파두카(미국)
- 샤르자(아랍에미리트)
- 비엘라(이탈리아)

문화유산

- 진주검무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사진 출처 : <https://pixabay.com>)

농촌 차원의 문화공간

| 실비아 아만*

초 록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의 문화 정책들이나 개발 계획들은 그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농촌 지역의 공간들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 정책 개발은 목표가 된 지역의 특수한 필요나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농촌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고자 할 때, 상호작용의 양과 질 뿐만 아니라, 밀도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은 문화 정책의 디자인과 지원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기본적인 정책 결정은-예를 들어 더 많은 농촌 지역의 청중들을 (인근) 도심 지역에서의 문화적 제공물로 끌어들이는 의미에서-다소간 중앙에 집중된 접근방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문화 행사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예컨대 지역 박물관이나 문화 경관같은), 넓은 범위의 (독특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문화 관련 공간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과 장소들을 지역인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유럽의 몇몇 도시들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주요 단어 : 문화, 창의적인 공간, 농촌 지역, 도심 외곽 지역, Covid-19, 문화 정책

* 실비아 아만(Sylvia AMANN), Inforelais의 대표이며, EU의 도시개발 프로그램의 문화 전문가이면서 유럽 문화수도 선정 및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그녀는 비엔나 경제 및 경영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이메일: office@inforelais.org



다흐슈타인, 오스트리아
(사진 출처 : <https://pixabay.com>)

유럽의 비도시 공간의 커다란 특징은 농업지역, 산악지역, 그리고 도시 인근지역과 같은 이행 지역 등 여러 유형의 지역들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 통계청 (Eurostat)¹ 자료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40.4 퍼센트만이 도시에서 거주한다. 유럽 연합 (EU)은 최근 들어 좀 더 균형 잡힌 영토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비도시, 농촌, 그리고 도시 인근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적 특징은 거주민과 문화 기관의 수라는 측면에서 밀도가 낮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민들의 상호작용의 밀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낮은 밀도는 농촌 지역이 유치할 수 있는 방문자의 수²나 창의적인 사업가에게 제공되는 생태계와 혁신적 환경의 측면에서 전략적인 불리함이 된다. 더욱이 이 지역들은 문화적 공급에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도심 지역 보다 주민들의 문화적 참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문화 참여는 도심 지역의 문화 소비와 그 패턴이 다르다. (수요의 측면에서) 유럽 연합 통계청³의 문화적 참여에 관한 데이터는 도시화의 정도와 문화적 참여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즉 “2015년을 기준으로 도시에 사는 유럽 28개국 (16세 이

1.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Archive:Statistics_on_rural_areas_in_the_EU.

2. 또한 농촌지역은 오스트리아의 해시타트 마을이 잘 예증하는 것과 같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직면할 수 있다 그 곳은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 g. Benner, M., “Overcoming overtourism in Europe: Towards an institutional-behavioral research agenda,” <https://www.degruyter.com/view/journals/zfw/64/2/article-p74.xml>.

3.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Culture_statistics_-_cultural_participation#Cultural_participation_by_degree_of_urbanisation.

상의) 인구 중 2/3 이상(68.7%)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읍 지역과 교외 지역(63.9%) 혹은 농촌 지역(56.8%)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치로서, 도심 안이나 인근 지역에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더욱이 농촌 지역의 문화 참여는 라이브 공연 관람이 대부분이었다.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공통적인 주된 특징은(각 지역의 부와 체계를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다. 도심 거주자들에 비해서 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고, 평균적 연령이 높은 편이며, 평균 학력이 낮은 편이다. 여기서 낮은 학력과 관련해서, 부모의 최종 학력과 자녀들의 문화 참여도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Schonherr and Oberhuber 2015).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농촌 인구 중 고등 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거주자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이는 도심 지역 인구의 비율 43%와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농촌 인구의 학력 수준이 도심 인구를 빠르게 따라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농촌지역 인구 중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1971년에서 2014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한 반면, 도심 지역 인구에서는 5배 증가에 머물렀다(Gartner and Hametner 2017). 이런 수치는 비도심 지역에서의 문화 활동 참여의 비율이 높아질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적절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문화적 공급과 수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두 개의 상호 연결된 버튼을 이룬다. 문화적 소비는 농촌지역 인구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의 문화적 공급에 투자함으로써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들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은 문화적 공급과 기반 시설의 분권화가 도심과 농촌의 시너지를 강화시킨 많은 관련된 공적 실천의 한 사례이다(Ruiz-Martinez and Esparcia 2020). 정책적 개입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또 하나의 예는 독일의 “Kulturelle Landpartie” 축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축제는 매년 130개가 넘는 문화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1000여 개의 행사를 개발하는데, 6만여 명의 방문객들을 농촌 지역으로 유치하고 있다.⁴

문화 상품 및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판매(시장-지향)를 목표로 한 비전문적 또는 전문적 공급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많은 자원봉사(문화) 조직에 의해 공급됨으로써 농촌 지역민의 사회적 결속력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범유럽 네트워크인 유럽 창의 허브(European Creative Hub)는 작은 도시와 마을들 내의 창의적 접근 지점(creative access point)을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과 환경을 포괄한다. 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유럽 창의 허브는 동료 집단(peer-led) 네트워크로서 유럽과 인근 국가들 내 허브들의 창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개선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인 전문가들과 사업체들의 포컬 포인트로서, 허브들은 문화 산업과 창의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⁵ 각 지역을 담당하는 창의 허브 관리자들과의 연계와 소통을 통해, 이 네

4. <https://www.kulturelle-landpartie.de/>.

5. <http://creativehubs.net/>.

트위크는 유럽 내 국가 및 지역 간의 동료학습(peer-learning)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적 (그리고 농촌을 위한) 정책 목표들은 도심 지역 외곽의 문화적인 환경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는 정책들이 지향하는 바가 지역 분권적인지 또는 중앙 중심적인지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정책에 지침이 되는 원리들은 농촌 지역의 (예: 문화 유산에 기반을 둔 관광이 제공하는) 가치 제고 혹은 농촌의 문화적 공급에서 농촌 인구의 참여를 강화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정책 입안자들 이외에, 유럽 연합 내의 강화된 협력은 유럽 연합 농촌 개발 프로그램들(EU rural development programmes)⁶을 통한 추가적인 문화 발전의 장을 생성한다. 이러한 펀딩 프로그램들은, 그 중에서도 유럽 연합 내 농촌 지역의 문화관광 및 창의관광을 재생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컬트트리프(Culttrips)”⁷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농촌 지역들과 문화 담당자들의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농촌의 문화 예술적 삶에서의 예외적인 제안과 통찰을 통해서 창의적인 ‘슬로우 투어리즘’(slow tourism)을 재생시켰다.

농촌 지역의 이렇게 다른 특징들과 정책 대안들을 감안한다면, 특별히 선호되는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 또한 각 지역 별로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문화 공간들이 있을까? 지역 박물관 혹은 커뮤니티 센터, 야외 공연장, 마을 광장 등이 있을 수 있다. 많은 농촌 지역은 문화공간이라고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적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공장지대와 같이 지역 내의 버려져 있거나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하거나 재활용 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스트리아 북쪽 끝에 위치한 리히츠필 알렌차이그(Lichtspiel Allentseig)⁸는 원래 버려진 극장이었으나 지금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미디어, 미술, 문화 센터로 탈바꿈 했다. 공동의 창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곳은 현재 의미있는 프로젝트들의 개발을 위한 멀티미디어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거기에는 풍부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워크샵과 연수 등의 이벤트들을 홍보하는 협회가 있다.

이러한 공간들의 개발은 접근성과 장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대중교통의 편의성, 농촌 주민들의 특수한 생활 패턴을 고려한 영업 시간(도심 지역으로 통근하는 시간대를 피하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특히 증가된 디지털 연결 수단의 필요 측면에서의 이 공간들의 기술적 장비 등에 관한 것이다.

농촌 지역의 문화 공간들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잠재적인 방문객들을 확보하고 또 상당한 정도의 규모를 보장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계절에 따른 방문자 수의 변동가능성은 특히 농촌 지역 상주 인구의 낮은 밀도를 생각했을 때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지속가능

6.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policy/themes/rural-development/.

7. <https://cultrips.org/>.

8. <http://lichtspiel.at/>.

한 이익 창출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들의 운영을 위해서 (공적인) 재정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농촌지역의 문화 공간에 투자되는 공적 혹은 사적 자본들은 그 동기가 지역마다 매우 다를 수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예를 들어 분권이나 탈지역화와 같은 한 국가의 보다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이라는) 정치적 이유, (국가나 회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농촌 지역의 관련성이라는) 역사적 이유, (특정 비도시 지역이 연고지 일 경우와 같은) 개인적 이유, 그 외 (예를 들어 관광사업 관계자 가 탁월한 접근성 때문에 어떤 지역을 선택했을 경우와 같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가장 좋은 경우, 장기적인 구상과 참여적 접근을 토대로-문화적 기반 시설이나 공간이 건립되었다면, 다음은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핵적인 문제가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관련된 특수한 문화 경영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일하는 것이 경력을 위한 최고로 보장된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능력있는 문화경영자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는 클라우드 소싱 이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재정 조달 방법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 문화 활동에서의 주인 의식 생성, 웰빙을 강화하는 지역인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증대,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강화 등의 긍정적 부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 Gartner, Gerald, and Markus Hametner. 2017. *Welches Bildungsniveau in Ihrer Gemeinde überwiegt*. Wien: DER STANDARD.
- Schönherr, Daniel, and Florian Oberhuber. 2015. *Kulturelle Beteiligung in Wien*. SORA—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nd Consulting. Wien: März.
- Ruiz-Martinez, Irune, and Javier Esparcia. 2020. “Cultural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in Valencia province.” ROBUST-Project. April 2020. <https://rural-urban.eu/publications/good-practice-cultural-infrastructures-and-services-valencia-province>.